



2025년 가을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운동을 나갔다. 아침 공기가 살짝 서늘하긴 했지만, 아직은 괜찮았다. 움직이다 보면 금세 땀이 나고, 그 땀 위로 바람이 지나가면 오히려 시원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 공기의 결이 달라졌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차가운 냄새, 잠시 서 있으면 어깨가 움츠러드는 온도. 숫자로는 최저 5도, 최고 19도로 예전 같으면 운동하기 좋은 날씨가 됐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게 느껴진다. 공기가 너무 싸늘하고, 그 공기가 살갗에 닿는 순간 몸이 먼저 수축한다. 어디선가 나뭇잎 마찰음이 바람을 따라 흘러왔고 그 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계절은 확실히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있었고 나는 어리둥절했다.

매일 밤 내일의 운동을 결심하지만 아침이 되면 그 결심이 무너진다. 눈을 뜨면 먼저 느껴지는 건 이불 밖의 냉기다. 그 작은 차이를 견디지 못해 이불 속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어제는 집 안에서 발이 시려 양말을 신었다. 바닥의 차가움이 발 바닥을 타고 올라온다. 예전엔 이런 정도의 냉기가 오히려 기분 좋게 느껴졌는데 이젠 그게 괴롭다. 손끝이 시리고, 물이 닿는 감각이 차갑게 남는 게 싫다. 나이를 먹는다는 건 결국 계절의 변화를 몸으로 먼저 감지하게 되는 일인가 보다. 여름에는 더위만큼이나 식지 않는 피로를, 가을에는 추위보다 마음이 먼저 식어감을 느끼니 말이다. 그리고 보니 나는 요즘 자주 '춥다' 는 말을 입에 올린다. 단순한 기온의 변화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운동을 포기한 날, 이불속에서 한참을 있었다. 적막처럼 조용한데도 세상의 소리들이 역지로 밀려왔다. 위층에서 의자 끄는 소리, 복도 끝을 지나가는 누군가의 발자국, 냉장고나 공기청정기가 간헐적으로 내뿜는 낮은 진동, 멀리서 자동차가 지나가며 남긴 소리가 벽을 타고 퍼졌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소리들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고요와 소음의 경계에서 하루가 천천히 흘러가는 느낌이였다.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잠시 멈춰 있는 듯, 그 멈춤에 평화를 느꼈다. 그날의 정적은 이상하게도 공허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들리지 않던 내 안의 목소리가 그 틈새로 조용히 스며들었다.

8년 넘게 살았던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가기까지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주변에서는 요즘 내가 많이 바쁘고 정신없을 거라 말하지만, 사실 최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한가했다. 대부분의 날을 집에서 혼자 조용히 보냈다. 내가 바쁠까 봐 주변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었고, 나 역시 일부러 약속을 잡지 않았다. 어쩌면 이런 고요함이 지금 내게 꼭 필요한 시간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한가하고 여유롭게 하루하루를 보냈다. 허둥지둥 짐을 싸며 떠나기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익숙한 것들을 천천히 마음에 담고 싶었다. 곧 다시 분주한 삶 속으로 뛰어들 테니, 지금은 이 정적마저 아껴두고 싶었다. 오히려 그 고요 속에서 많은 것을 정리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며칠 전 집 앞 공원을 지나다가 코스모스를 봤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가느다란 꽃대가 크게 휘었지만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줄기는 생각보다 질겼고, 얇은 꽃잎이 바람에 맞서는 모양새가 묘하게 단단했다. 내가 그 꽃과 닮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의 나는 무언가를 이겨내기보다는 견디는 쪽에 가깝다. 무리하게 버티지 않으려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놓지도 못한다. 하루를 버티는 것이 버차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여전히 끝까지 서 있어야 할 것만 같다. 코스모스의 버팀은 그런 종류의 것이다. 대단한 의지도, 특별한 사연도 없이 그저 자기 자리를 지키며 바람을 맞는 일,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불어오는 바람을 막지 않고 그대로 맞으며 휘지만 부러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 어찌 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살아 있는 것들은 다 그렇게 하루를 넘긴다.

가을의 공기에는 묘한 냄새가 섞여 있다. 마른풀, 오래된 흙, 아직 남은 여름의 흔적 같은 냄새를 맡으면 한 해가 서서히 저물어간다는 걸 몸이 먼저 눈치챈다. 처음엔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이젠 그 냄새를 맡으면 오히려 안심이 된다. 가을은 차가운데도 낭만이 있고, 쓸쓸한데도 아름답다. 올해의 공기가 내년의 공기와 다를 이유는 없겠지만, 나는 매년 다르게 느낀다. 어쩌면 그것은 나이가 쌓인다는 뜻이고, 그만큼 마음의 방향이 달라졌다는 뜻일지도 모른다.

가끔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는다. 그 바람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 때면,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고 있음을 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엔 내 변화도 섞여 있다. 지금 내 몸이 느끼는 추위는 단순한 기온의 변화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가을은 그렇게 나를 데리고 또 한 계절을 건너간다. 해마다 비슷한 듯 다른 온도, 그 안에서 조금씩 변하는 나. 그리고 올해는 그 변화가 유난히 또렷했다. 익숙한 것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자리로 옮겨갈 준비를 하는 지금, 나는 그 변화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제는 그저, 내가 견딜 수 있는 온도로 하루를 살아내면 된다.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가장 정직한 온도일 것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Implant \$1,500	잇몸치료 \$600	Exam X-ray Cleaning \$80
Crown \$800	틀니 \$2,000	각종 보험 메디칼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
---	---	---